



패럴림피언의 삶의 기록: 장애인 탁구 패럴림피언을 중심으로*

최 승 아** · 김 지 훈***

The Record of the Life of Paralipians: Centering on Paralipians in Table Tennis for the Disabled*

Choi, Seung-Ah** · Kim, Ji-Hun***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ralympic participation experience of the disabled table tennis team, which is still marginalized from interest to the general public, and what it means. **[Method]** What is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Paralympic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search participa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table tennis Paralympics? What is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Paralympics and winning a prize? The meaning of life of the Paralympics was classified by period and the context of the story was analyzed to derive an interpretation.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participants gained unwanted disabilities due to unexpected accidents in the military, and as they encountered table tennis for rehabilitation, it is a hope that they can live again. Second, participation in the Paralympics had to overcome not only time and cost, but also the pain of indifference, discrimination, and disability. Third, their athletic conditions have been improving since they became Paralympic champions, but they were still concerned about their hardships. **[Conclusion]** We need more attention from the media and others, along with practical support for disabled athletes preparing for the Paralympics while overcoming the still lack of interest and support.

Key Words : Disabled Soldiers, Paralympics, Farrellimpian, Table Tennis, Oral History

* 이 논문은 2017년 우석대학교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의 구술채록사업에서 이용된 구술 참여자의 기록을 활용함.

** 제 1저자, 강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Dept. of Physical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강사(kindkjh7@nate.com)
Instructor, Dept. of Sport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2021년 7월 23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됐다.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우리나라 언론은 앞다투어 어느 종목, 어떤 선수가 메달을 획득할지 예측하고, 보도하기 바빴다. 언론의 관심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기종목과 인기 선수 경기에만 집중되다 보니 지상파 중계가 같은 시간 인기종목, 즉 광고 수익이 더 큰 방송으로 편중되면서 다른 종목 경기를 보지 못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노지민, 2021.08.01.).

편중된 언론의 모습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끝나고 연이어 진행되는 장애인 선수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에서 더욱더 짙어진다. 패럴림픽에 대한 언론 보도는 눈에 띄게 현저히 줄어들고, 이와 함께 대중의 관심도 점차 멀어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패럴림픽이라도 여지없이 적용된다(장일호, 2018.03.19.).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때부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반 개최되기 시작했고, 2018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있었던 상황에서 정작 올림픽이 시작된 후 평창올림픽 중계와 달리 패럴림픽 방송 중계는 지상파 3사 모두 20시간 미만으로 중계 시간을 편성하면서 국민적 무관심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장일호, 2018.03.19.).

이러한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도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도전하고,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매년 감동의 서사를 안겨주는 패럴림픽(Paralympics)은 국제 신체장애인 체육대회로 영국의 스토크맨더빌 병원의 의사 구트만(Guttmann, L.)에 의하여 1948년 최초의 척수장애인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1952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지역 국제대회로 확대 발전하였다. 패럴림픽은 ‘Paraplegia(척수장애: 휠체어 등 하반신 마비)’의 접두어 ‘Para’와 ‘Olympics’의 어미 ‘lympics’의 합성어다. 최초 2차 세계대전 참전 상이군인을 위한 대회였으나, 점차 종목 및 참가 규모, 장애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원래 어원에서 벗어나 평행(Parallel)하게 올림픽과 함께 치러지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는 의미로 새로운 정의를 도출하였다(장일호, 2018.03.19.).

장애인 체육대회의 시작이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도 초기에는 상이군경을 중심으로 국가대표가 구성되었다. 이후 1972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 탁구 종목에서 송신남, 최태암, 박연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패럴림픽 장애인 탁구 종목은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들이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이 된다(조선일보, 1973.08.13.).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패럴림픽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에 당당히 탁구가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패럴림픽이 다가오면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연합뉴스, 2008.09.16.)이 된 장애인 탁구 종목은 장애 등급에 따라 분류되는데, 1등급부터

5등급(보장구 없이 보행 불가능)까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경기하고, 6등급부터 10등급은 서서 경기를 진행한다. 1등급과 가까울수록 장애 정도가 높으며, 선수는 등급과 관계없이 라켓을 손에 묶고 시합을 할 수 있다(연합뉴스, 2008.09.16.).

장애인 탁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학위 논문 약 15건, 학술 논문 약 20건으로 대부분의 연구는 만족도, 효능감, 탁구 기술, 운동 제약,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물이 대부분이다. 김병영(2010)의 장애인 탁구의 변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탁구 보급 및 발전에 대해 도입기, 성장기, 정착기로 구분하여 진행된 연구가 유일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위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탁구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연구이다.

한편, 장애인 탁구에 관한 연구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장애인 선수들의 운동기능, 심리, 운동 참여동기 등과 관련한 연구인 문건필(2008)의 척수장애 휠체어 탁구 스트로크의 운동학적 분석 및 전달장애 선수와의 비교 - 2008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구, 남정훈(2010)의 장애인 탁구 동호인들의 참가동기, 신체적 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연구, 백혜경과 양명환(2013)의 장애인 탁구선수들의 운동 참여동기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나아가 면담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드러내려는 시도들도 있게 되었는데, 박기동, 곽낙현과 윤대중(2018)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구술을 통해 본 특수교육 연구, 김일수, 이승훈과 최경훈(2018)의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공헌자의 구술생애사(3) 휠체어 탁구 및 론볼의 선구자 ‘송신남’ 등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써 패럴림픽에서 효자종목이 된 장애인 탁구에 관하여, 선수들의 구술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일반인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혹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패럴림픽에 관하여 “출전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연습은 어떻게 했으며,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경기 결과는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패럴림픽 출전과 입상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익숙한 공간인 소속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결과는 체육인 구술 채록 전문가 5명과 연구참여자의 검독 과정을 거쳐 유의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유의미한 내용은 장애인 탁구 역사에서의 비중, 개인의 삶에서의 비중 등이다. 또한 당시 공식기록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시적으로 장애인 탁구 패럴림픽인들의 패럴림픽 도전과정과 의미를 조금이나 이해하고,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인들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 중 개인의 경험을 구술을 통해 드러내고, 기록하여 그들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작업인 구술사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술사 연구방법의 절차인 주제선정, 선행문헌연구,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 정보조사, 사전인터뷰(라포형성), 면담, 전사, 추가 면담, 구술채록 주제/시기/사건/맥락 분류 분석, 연구참여자 검독 과정을 거친 후 문헌을 활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기 위하여 첫째, 관련 신문기사, 문서, 기록 등과 삼각 검증을 시도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구술녹취록 검독 과정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였다. 셋째, 대학교수 2인, 박사연구원 3인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사건과 상황, 분석과 해석 등에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로 다수의 패럴림픽에 출전한 경험을 가진 패럴림픽인 이해곤, 최경식, 정은창 3인을 선정하였으며, 신체적 불편함을 고려하여 개인별 1일 2차/총 3시간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사전에 연구참여자와 충분히 논의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이동 동선과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조율하여 선택하였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 Information

Participants	Age	Major Career	Reason for Disability	Competition Disability Rating
Lee Hae Gon	69	6th Paralympic Games (Gold 6, silver 1, bronze 3)	Military Accident	Grade 1
Choi Kyung-sik	56	4th Paralympic Games (Gold 2, bronze 2)	Military Accident	Grade 4
Jeong Eunchang	53	6th Paralympic Games (Gold 6, silver 1, bronze 4)	Military Accident	Grade 4-5

1. 장애인 탁구 선수가 되는 과정

1) 이해곤

이해곤은 경기도 시흥군 안양에서 1953년 10월 8일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몸이 굉장히 약하고 힘이 없었으며, 운동에도 소질이 없었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한 운동은 고등학교 때 잠깐 한 태권도가 전부였다. 군에 입대할 시기가 되어 친구와 공군에 입대하려고 병무청을 찾았으나 담당자 부재로 지원할 수 없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해병대 담당자의 권유로 얼떨결에 해병대에 지원하고 입대하게 된다. 그러나 군대에서 부상을 당해 6년간 병상 생활을 하게 된다. 당시 원호병원¹⁾에서 재활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다른 상이군경들과 지내며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재활을 하기 전 이해곤은 목을 다쳤기 때문에 사지가 마비되어 대·소변까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했다. 그러다 재활병원에 방문하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교환교수로 왔던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재활을 시작하게 됐다. 일주일에 세 번 재활치료를 받으며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탁구를 접하게 되었다. 탁구에 재미를 붙이고 꾸준히 하다 보니 팔에도 힘이 생기고, 허리에도 힘이 생겨, 신변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2) 최경식

최경식은 1966년 9월 24일 경상남도 창원군 이방면에서 태어났다.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 테니스를 잠깐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운동은 거의 전무했다. 군 생활은 전라도 김제에서 근무했는데 복무 8개월 정도 되던 때에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하게 된다. 1988년 부상으로 제대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석가공을 배우고 있었다. 그때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에서 외국 선수가 휠체어를 타고 탁구치는 모습을 보고 탁구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1989년 보석가공 훈련을 졸업하고, 휠체어 탁구를 하려고 알아봤지만 그때 당시 대구에서 휠체어 탁구를 하는 곳은 없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아가 체육관에 탁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습 상대가 없어 보석가공 훈련소에서 만난 지인에게 권유하여 탁구를 시작하게 된다.

3) 정은창

정은창은 1969년 8월 17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을 좋아했지만, 특정 종목을 배운 것은 없었다. 중학교 시절도 특별한 것은 없었고, 고등학교 때 합기도를 조금 배웠다. 대학 입학 후 적성에 맞지 않아 군에 입대하였다. 입대 전 운전면허가 없었지만, 우연히 대학 전공인 기계공학과와 연관 지어 운전병 교육을 받고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된다. 운전병이다 보니

1) 상이군경, 애국지사 및 4·19 상이자 등 국가유공자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진료를 수행하는 병원으로 2011년 중앙보훈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차량 정비를 하게 되는데 차량 정비 중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라는 증상을 입고 제대하게 된다. 사고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좌절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지내면서 휠체어 타고 활도 쏘고, 탁구도 치는 모습을 보며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며 지나쳤었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도통합병원에서 대전 보훈병원으로 병원을 옮기며 재활치료를 받고, 탁구를 시작하게 된다.

위 3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군 입대 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된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갑자기 찾아온 사고는 그들에게서 삶을 빼앗고, 의미를 잃어버린 채 힘겨운 나날을 살게 했다. 그러나 재활, 또는 우연히 보게 된 탁구는 그들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호기심이었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목적을 만들어주게 된다.

2.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패럴림픽에 대한 기억

1) 이해곤

이해곤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까지 6회 연속 패럴림픽에 참가한 명실상부 장애인 탁구의 산증인이다. 1988년 제8회 서울패럴림픽 남자탁구 단체전 금메달, 제9회 바르셀로나 패럴림픽 단체전 금메달·단식 동메달, 제10회 애틀랜타 패럴림픽 단체전 동메달·단식 금메달, 제11회 시드니패럴림픽 단체전·단식 금메달, 제12회 아테네패럴림픽 단체전 금메달·단식 은메달, 제13회 베이징 패럴림픽 단체·단식 동메달 등 패럴림픽 메달을 11개나 획득하였다.

1985년 이해곤은 처음으로 스톡홀름국제경기대회(ISMG)에 참가하게 된다. 그 전에도 참가가 가능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다가 1985년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국가대표지만 코치도 없었다. 서울 보훈병원에 근무하는 체육과 출신 체육 교사가 모든 업무를 혼자 담당했다. 처음 선수가 되었을 때는 제대로 된 훈련장, 숙소,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은 전무했다. 모든 것이 열악했다. 처음 가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은 고된 길이 된다.

선생님이 짜는데 보통 뭐 오전에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이렇게 짜 놓고 잠자는 것도 아휴~ 숙소가 조그마하니까 숙소라기보다도 당구 치던데 당구장, 수영장을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병실에서 침대를 옮겨다가 깔아놓고 거기에서 자게하고 뭐 모기도 많고요. 그냥 뭐 말도 못해요. 더워 가지고, 에어컨은 없잖아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새 그냥 잤어요. 모기향 피워 놓고 옛날에 퍼런 거 모기향 있잖아요. 그거 피워 놓고요(2017년 8월 24일, 수원보훈재활센터, 이해곤 1차 인터뷰).

대회 참가를 위해 영국까지 가는 직항이 없어 24시간 만에 영국에 도착했다. 경기장에서 숙소까지 거리도 멀고,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없어 휠체어를 만들지 못해 다른 나라 선수 휠체어에 비해 엉성하였다. 그래도 나라를 대표해 출전했기에 잘 밀리지 않는 휠체어를 밀고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그 결과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민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도 별로, 저희들은 상해 용사니까 그래도 그나마 군대에서 다쳐서 본인이 내가 그냥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일반 장애인들은 그렇게 못 봤어요. 부모님들도 관심도 없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2017년 8월 24일, 수원보훈재활센터, 이해곤 1차 인터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장애인 선수 대회는 거의 없었다. 상이군경 출신이 아닌 일반 장애인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1981년 6월 5일 우리나라 최초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면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생겼으나 1988년 패럴림픽 대회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거 확충되었고,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88 때부터 88년부터 일반 장애인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올림픽에 나가게 됐는데 88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일반 장애인들한테는 국제대회도 그렇지만 운동, 이 탁구라는 것이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변 확대가 안되어 있었어요(2017년 8월 24일, 수원보훈재활센터, 이해곤 1차 인터뷰).

1988년 서울패럴림픽을 열리게 되면서 일반 장애인하고, 상이군경들하고 같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 당시는 지금처럼 랭킹을 통해 출전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나라별 선발전을 통해 출전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지금같이 올림픽 참가 점수라든지 랭킹 점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고 그 나라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출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수)숫자가 많죠,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각 체급별로 선수대표를 시험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각 체급별로 복식을 쳐야되니까 한 체급에 두 명씩 5체급까지 있으니까 10명을 뽑는 거예요. 탁구 선수를 그렇게 10명을 뽑아가지고, 88올림픽 때 나왔어요. 그리고 88때 일반 장애인들도 나왔어요. 스탠딩이라고, 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소아마비 그 사람들은 6등급, 7등급, 10등급까지 해가지고, 그 소아마비 활동을 하는 심사를 봐가지고...(2017년 8월 24일, 수원보훈재활센터, 이해곤 1차 인터뷰).

1988년 서울패럴림픽은 최초로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패럴림픽을 개최한 대회로 당

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장애인에 대해 주의깊게 다루기 시작했다. 올림픽의 효과였다(김성재, 1988.10.14.; 김성재, 1988.10.22.; 김성재, 1988.10.25.; 정석구, 1988.11.19.; 정석구, 1988.11.20.).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수들이 시합장으로 이동했다.

이해곤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본인 생각은 좀 달랐다. 장애인 선수의 패럴림픽 포상금과 연금은 일반인 선수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부터 일반선수가 받는 포상금, 연금과 같아졌다(황일송, 2022.10.31.; 뉴시스, 2008.09.05.). 한편, 1992년 바르셀로나 패럴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협회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가대표에 비해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1992년 바르셀로나 패럴림픽, 19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니 주변의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

그때 당시는 장애인 무슨 협회 그런 것은 없었고요. 복지진흥회라고 있었어요. 장애인 지 쪽에 무슨 뭐 조금 지원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 (중략) ... 장애인 체육회라는 것이 없고 그냥 복지진흥회라고 해서 장애인들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때 당시 쌍용하고 삼성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중략) 애틀랜타부터 변화가 뭐냐면 제가 바르셀로나 하고 애틀랜타하고 이런 데서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세계 탁구를 잘 친다는 선수들하고 코치 감독들한테 제 이름이 다 알려졌잖아요. 미스터리라고 하고 대번에 다 알려지니까 저도 훗날 좀 좋은 거로 갈아타고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 선수 대기실이나 이런 데 밖에 나와서 있으면 다른 나라 선수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툭툭 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프랑스라든가 영국 선수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우리를 상당히 무시했거든 아주 우리나라가 자기네들보다 못 산다고 그래서 그런지 난 그런 게 참 외국 나가면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 데 메달을 따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자기네들이 먼저 인사하고 내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먼저 인사하고 감독 코치들이 먼저 와서 툭툭 치고 사진 같이 찍자고 하고 뺏지 교환하자고 하고 뭐 괜히 뭘 주고 괜히 뭘 줘요. 나는 안 주는데 “아 사람이 금메달을 따야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2017년 8월 24일, 수원보훈재활센터, 이해곤 2차 인터뷰).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그리고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준비를 위한 연습은 늘 최경식, 정은창 선수, 즉 팀원들과 함께였다. 각자 개인훈련을 하고, 모여서 함께 맞춰보기를 반복 또 반복했다. 늘 그렇듯 훈련은 반복의 연속이다.

1988년 서울패럴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패럴림픽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서울올림픽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가지고 마지막 장식을 동메달로 결정으로 못하겠는데요. 금메달을 따가지고 저거(은퇴)를 해야되는데 서울올림픽 때보다 베이징 올림픽 끝날 때까지 너무 우리 장애인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또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선수도 많이 늘고 정말 잘 치는 선수도 많이 생기고 또 외국 가서 자신 있게 떨지 않고 자신 있게 잘하고 아주 그런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장애인 됐지만 운동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후배들 양성이 잘 됐잖아요. 조직적으로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면서 올림픽 거칠 때마다 일반 선수들하고 우리 장애인들과 하나가 되가지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서로가 이제 형, 동생 하면서 가까워져 가지고 그 전같이 국가 유공자라고 그러고 일반 장애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동료로서 그런 거 다 가르쳐 주고 전수해주고 다 발전이 되면서 베이징 이후에는 거의 다 비슷해졌어요(2017년 8월 24일, 수원보훈재활센터, 이해곤 2차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이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장애인 체육의 인프라가 확충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해곤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장해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 발전의 시작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와 장애인을 향한 인식의 개선을 계속해서 필요하다.

2) 최경식

1989년 탁구를 접한 후 1991년 스톡홀름 국제경기대회(ISMG)에 상이군경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이후 1993년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에 선발된다. 당시 각 지역에서 각 체급 6명의 선수를 선발해 시합을 통해 체급별 2명을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패럴림픽 출전은 2000년 제11회 시드니 패럴림픽은 시작으로 2008년 제13회 베이징패럴림픽까지 출전하였으며 11회 대회 단식 동메달, 12회 대회 단체전 금메달, 단식 동메달, 13회 대회 단체 금메달을 획득하여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어떤 면에서 오리지널 코스를 밟은 지도자보다는 스탠딩에 장애인 선수에게 직접 제가 배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큰 장점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고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은 기술면에서 뛰어나지만 와서 장애인들의 장애 상태를 보지 않고 기술만 접목해서 오는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행운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몰랐지만 같은 장애인들이 그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족해도 장애인들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3년 만에 빨리 성장하게 된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2017년 7월 28일, 대구보훈병원, 최경식 1차 인터뷰).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전문적인 지도자는 없었다. 그러나 다리에 장애가 있지만 휠체어를 타지 않는 스탠딩으로 탁구를 치는 분들한테 탁구를 배우게 된 것이다. 처음 탁구를 접할 때 장애를 이해하는 동호인을 만난 것이 최경식에게 운동을 열심

히 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당시 장애인 탁구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0년 이후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당시 이전보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조금 나아졌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시드니 때보다는 아테네 때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때는 방송국에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우리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제가 선수들하고 같이 나오는 제가 출국(공항에 입국)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인터뷰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세 사람 인터뷰 할 때 “기분이 어떠냐?” “정말 최고다. 코리아 만세” 했던 그런 기억이 선명하고요. 또 베이징 때는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 특히 중국 탁구 종주국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단체전 우승하고 나왔을 때는 시드니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매스컴도 많이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시드니 때보다는 아테네 때가 낮고 아테네 보다는 베이징이 훨씬 나왔다는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인터뷰가 아무래도 인터뷰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2017년 7월 28일, 대구보훈병원, 최경식 1차 인터뷰).

장애인 탁구 종목은 스탠딩 파트와 휠체어 파트로 나뉜다. 스탠딩 파트는 메달이 잘 안 나오는 종목이다. 휠체어 파트도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까지는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했지만 이후 대회에서는 이전에 비해 고전을 하고 있었다.

스탠딩은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메달이 잘 안 나옵니다. 중국이라는 워낙 강세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 때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패럴림픽까지는 성적이 상위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4강 정도 안에 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 아테네 패럴림픽 끝나고 베이징까지는 조금 중반에서 약간 아래로 처진 그런 성적입니다. …(중략)… 지금은 거의 7~8개 나라가 평준화 됐습니다. 제 느낌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훈련방식 개인 의지 가지고는 사실은 금메달을 따는 게 옛날 보다는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 다른 나라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2017년 7월 28일, 대구보훈병원, 최경식 1차 인터뷰).

탁구 기술과 성적이 점차 세계적으로 상위 평준화되면서 우리에게 패럴림픽 금메달은 조금씩 어려워졌다. 여기에 따르는 승리지상주의의 그림자는 패럴림픽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선수 스스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다 같은 메달이 아닌 것이다. 여기엔 경기성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코치와의 마찰도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일반선수 출신의 코치와 장애인인 선수 사이에는 경험하지 못한 장애에 관한 무지에서 오는 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아테네 패럴림픽부터 금메달 따고 시상대에 올라갔던 제가 안 그래도 인터뷰하기 전에 한 번 봤는데 우연히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아! 보니까 시드니 때 시상 모습, 은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과 아테네 패럴림픽 때 걸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완화 됐다고 하지만 금메달 시상(주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중략)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엘리트선수 생활을 해 왔던 그 코치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가끔씩 부딪혔던 경우가 합동훈련 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루듯이 장애인 선수를 다뤘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표현하고 말투에서 조금 이런 명령조라든가 또 지시형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는 그런 쪽에 어떤 (것이) 처음에 있어서 많이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장애인 지도자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일반인이 학생들 다루듯이 다루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장애인들은 알다시피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연령에 맞는 표현력도 써야되고 또 장애를 먼저 알아야 같은 기술을 포인트 기술이라도 일반인들이 쓰는 기술과 똑같은 품이라도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은 허리힘이 약하다 그러면 팔로만 친다. 그러면 스윙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팔에 의지하는 그런 거를 해야된다.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간에 지도자간에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트러블이 많았습니다(2017년 7월 28일, 대구보훈병원, 최경식 1차 인터뷰).

점차 장애인 팀도 실업팀이 생겨나고 있다. 일반 실업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선수로써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은 실업팀 선수가 되어 월급여를 받으며 훈련하는 것이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없으면 선수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며, 이는 일반 선수에게도 마찬가지 일이다(구동환, 2020.10.26.).

2002년 최경식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랭킹 1위에 오른다.

2002년 세계선수권대회인데 오픈 개인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오픈전이라는 말은 1체급부터 5체급까지 통합해서 하는 시합에서 우승했으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88 패럴림픽 보고 꿈을 가졌던 올림픽 금메달과 세계 1인자, 이때 제가 14년 만에 2004년도 대만세계선수권오픈전에서 우승을 제가 했습니다. 변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제가 세계 1인자가 되었던 거죠. 그때 정말로 너무 기뻐고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 꿈 중에 하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너무 기뻐던 저한테는 진짜 소중한 그런 세계선수권대회였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2017년 7월 28일, 대구보훈병원, 최경식 2차 인터뷰).

2008년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겐 잊지 못할 한해일 것이다. 이때부터 메달 획득에 대한 보상금이 일반 국가대표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리장성을 뛰어넘은 최경식, 이는 선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올림픽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로 출전했던 패럴림픽만큼 정말로 남달랐고요. 중

국에 여러 가지 환경들 힘들고 어려웠던 분위기 속에서 또 탁구라면 중국인데 중국의 만리장성을, 그때 신문에 ‘만리장성을 뛰어넘다’ 라는 그런 글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탁구 중주국 중국 만리장성을 넘어서 금메달 땀다는 게 제 인생에 최고의 선물이자 기분이고 느낌입니다(2017년 7월 28일, 대구보훈병원, 최경식 2차 인터뷰).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이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전에는 없거나 미미했던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전에 없이 늘어났다. 새로운 관심은 금메달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넘어 탁구 선수로써 인정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최경식에게 심어주었다.

방송에서 많이 마스크를 타고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험이 기억나는 게 제가 베이징 때 중국하고 이기고 금메달 따고 왔을 때 제가 이사를 갔을 때입니다. 이사를 가고 바로 합숙하고 올림픽 갔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 간 집에, 저희들은 이사 갈 때마다 항상 걱정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가? 또 장애인 차량을 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갔다가 베이징 갔다 오니까 우리 아파트에 환영한다는 플랜카드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주민들이 금메달을 따서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니까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편리를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금메달의 위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2017년 7월 26일, 대전보훈병원, 정은창 1차 인터뷰).

2010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지막으로 그는 은퇴를 결심한다. 이미 대회 전부터 대회 종료 후 은퇴를 마음먹고 있었다. 세계랭킹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최경식의 마음은 확고했다. 20년간 장애가 있는 몸으로 고통과 한계를 극복하고, 선수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일이 아닌가? 더욱이 패럴림픽이라는 세계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 준비를 위해 그가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인 부담과 압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에게는 20여년간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휴식이 필요했다. 20여년간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삶 자체를 운동에 맞추어 절제와 반죽된 연습으로 채우고, 여기에 더하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매순간을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다. 이것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깎고, 닦으며 이겨내 왔기에 그의 은퇴는 더욱더 빛났다.

2021년 제16회 도쿄 패럴림픽엔 탁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애인탁구팀 감독으로 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하며 받은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표시하고자 장애인 체육 발전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장애인 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정혜윤, 2021.04.29.).

3) 정은창

1991년 탁구를 시작한 정은창은 1994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 꾸준히 국제대회에 출전하며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랭킹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국내 선발전과 무관하게 출전이 좌절되었다. 이때 타 종목으로 전환까지 했었다.

정은창은 2000년 제11회 시드니 패럴림픽부터 2012년 제14회 런던 패럴림픽까지 4회 연속 패럴림픽에 출전했으며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현재는 대전장애인탁구팀 감독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림픽 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선수들이 꿈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이 꿈이니까. 근데 올림픽 시스템이 중간에 몇 번 바뀌어가지고, 한번은 중간에 선발전을 통해 나갈 수 있었는데 세계랭킹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선발전하고 무관하게 못 나가게 됐었고, 그런 과정 겪으면서 중간에 한 번 사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격도 순간적인 그 올림픽 좌절 때문에 한 번 했었어요. 한 3~4개월 정도 하면서 시합도 나가보고, 그러다가 다시 마음다 잡고, 올림픽 끝나고 다시 다음 올림픽을 계속 꾸준히 국가대표 활동하면서 경험도 쌓고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2017년 7월 26일, 대전보훈병원, 정은창 1차 인터뷰).

그는 탁구 선수를 시작하고,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원동력에는 첫 만남을 이어가던 지금의 아내가 있었다.

2000년대 초,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대부분이 상이군인이었다. 군인 출신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훈련환경도 군대와 비슷하게 조성됐다. 이러한 환경은 정은창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옛날에는 선배들이 무서웠어요. 군대에서 먼저 다친 선배들이 많고, 외부에서 온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좀 뭔가 좀 체계가 잡힌 공간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군대에서 다쳐서 나왔는데 또 군대에서 생활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조직적이고, 자기가 혼자만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내 내면에 있는 욕심을 좀 누르고, 속에만 넣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2017년 7월 26일, 대전보훈병원, 정은창 1차 인터뷰).

여전히 패럴림픽에 관한 방송 시간도 올림픽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메달획득 가능성이 있는 종목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언론의 외면으로 대중의 관심도 없었다. 그 부분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언제나 차별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과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문체육을 했던 지도자가 파견된 것이다. 사실 지도자도 없었던 1988년에 비하면 큰 발전을 한 것이었다. 지도자가 생기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는

패럴림픽 메달을 향한 또 다른 희망의 불씨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에 비하여 준비과정은 나아졌지만 패럴림픽 참가하는 여정은 여전히 열악했다.

2000년도 때는 선배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고, 2004년 그때부터는 이제는 일반 전문체육, 탁구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훈련을 해주는 쪽으로 아마 발전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분들 도움도 많이 받고, 그 분들이 오니까 이제 더 체계적인 기술, 좀 다듬어지지 않은 기술들을 다듬어 주시고 새로운 기술도 많이 준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2004년도에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출전했던 대회로 기억합니다. (중략) 아테네 갈 때 직항이 없어요. 전세기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 경유하고, 경유하고 가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선수촌 안에 가방 딱 놓는데 까지 서른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선수들 경유지에서 바닥에 다 누워 가지고 있는 거 마스크에 찍고, 해가지고 방송에 올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좀 그런 것 때문에 더 개선 되어 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2017년 7월 26일, 대전보훈병원, 정은창 1차 인터뷰).

위 글을 보면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한 전세기가 없어, 대회가 있는 나라까지 경유지를 거쳐가야 했는데 경유지에서 마땅히 쉴 장소가 없어 바닥에 누워있었고, 그걸 마스크에서 찍어 방송에 올렸다는 것을 보아도 그 당시 장애인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장애인 선수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으며, 장애인 선수들은 그것을 모두 견디며 패럴림픽에 나가야 했다는 사실을 대변해준다.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런던 공항을 경유하며 5시간 동안 기다리다 지쳐 바닥에 누워있던 선수에 관한 기사의 사진은 같은 국가대표로써 올림픽에 나가는 상황이지만 일반선수들과 다르게 너무나도 열악한 현실이 마스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었다.

2018년 정은창 대전장애인체육회 탁구 실업팀 감독으로 대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족이 망가진 선수를 안타까워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스포츠를 하다 보면... 자기 노력만 갖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주위 여건들이 갖춰줘야만 좋은 쪽으로 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솔직히 감독으로서 자괴감도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면, 그 힘으로 ○○○선수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CMB 대전방송, 2018년 3월 9일).

본인이 운동을 시작한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훈련장, 훈련장비 등의 지원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선수 개개인의 의족, 의수, 휠체어 등의 지원은 아직도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3. 장애를 넘어 패럴림픽이언으로

1) 이해곤

이해곤 선수는 2012년 대한민국체육상 극복상을 수상한다. 선수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서울패럴림픽 출전이였다. 그리고, 이해곤 선수에게 탁구는 패럴림픽언이라는 타이틀도 안겨주고, 동시에 건강과 인생의 즐거움을 찾게 해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후배들에게 가장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본인의 상황에 좌절하며 비관하지 말고, 언제나 인생의 길은 열려있기에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라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탁구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보다 운동하기 좋은 여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운동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일반인과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보상을 받기전까지 즉,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선수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 보다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병원은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바뀔 수 없는 현실이다.

2) 최경식

최경식 선수는 탁구 선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최경식은 위의 구술에서 몇 번이고, ‘꿈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게서 ‘꿈과 노력’이란 무엇이었을까? ‘꿈’은 장애를 갖게 된 비극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노력’은 최경식 선수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이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패럴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이 매스컴에서 회자되는 유승민 선수의 메달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가 패럴림픽을 향해 꿈꾸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유승민 선수가 올림픽을 꿈꾸고 했던 모든 것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장애가 있는 선수와 일반 코치와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둘의 합의점을 찾아서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장애를 경험하지 못한 일반 코치가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또는 흔히 하는 말처럼 쉽지 않다.

최경식에게 태극마크, 국위 선양 이 모든 것은 노력을 통해 얻은 산물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장애를 넘어 새롭게 꿈꾸고, 도전하게 만든 것은 결국 탁구를 만났기 때문이다. 탁구를 할 때만큼 그는 장애를 벗어났는데 어느새 장애인이 아니라 그는 탁구선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탁구선수로서 그는 결국 꿈과 같았던 패럴림픽언이 되었다. 탁구가 최경식에게 장애로 자칫 잃어버릴 삶을 새로운 꿈과 그 꿈의 정상에 서며, 또 다른 희망의 삶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간은 의지, 꿈을 가져야 성장할 수 있다. 최경식은 콜린 파월이 남긴 ‘꿈을 이루는 마술은 없다. 단지 땀과 노력과 결단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글귀를 늘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노력하고 있다.

3) 정은창

장애인 국가대표도 일반 국가대표와 마찬가지로 성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언론 역시도 연일 유명 선수들의 경기 결과는 상세히 전하면서도 장애인 종목 경기의 결과는 깜깜무소식이다. 더욱이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 중계는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차별이 심하다(2021년 8월 10일 미디어오늘 “패럴림픽 중계 적극 홍보하는 외신, 국내 방송사는?” 기사 인용). 이로 인해 선수들이 받는 차별과 무관심은 어떨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운동이라는 것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과 소통을 통해 화합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정은창은 탁구에서 소통과 함께, 그리고 팀워크를 강조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드러나는 조언이다. 팀 스포츠에서는 어느 한 명이 어긋나면 도미노처럼 모두가 쓰러질 수 있어서 늘 소통과 하나 되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가끔은 팀을 위해 나를 내려놓거나 때로는 팀원에게 양보하면서 서로 조율해가는 것이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차례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참가하며 겪었던 그의 조언을 주의 깊게 새길 필요가 있다.

정은창은 탁구를 통해 ‘나’를 넘어 ‘우리’를 강조한다. 이는 탁구가 그에게서 장애라는 불편함의 한계를 깨고, 팀원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됐지만, 탁구를 통해 패럴림픽이언이 된 정은창은 이제 자신의 경험이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개인의 도전과 성취의 경험은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롤 모델로써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IV. 논 의

이해곤, 최경식, 정은창은 패럴림픽에 여러 차례 참가하여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한 패럴림픽이언이다. 일반 올림픽이언들과 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지만 일반인 선수들과는 운동의 시작부터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해 있다.

첫째, 이들 모두는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그 결과 한순간에 원치 않은 장애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일반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으로 변하게 된 삶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가? 대부분 사람은 그러한 상상조차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이해곤의 회상처럼 그 현실이 지옥으로 변해버린다. 어제만 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팔과 다리가 이제 감각도조차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탁구는 장애가 생긴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한 희망이었다. 장애를 얻게 되고, 사라진 희망의 날들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이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탁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전했고, 처음에는 지옥같은 현실에서 좌절하던 그들도 조금씩 움직임의 변화를 보이는 자신의 몸을 통해 작은 삶의 희망의 불씨가 싹튼다. 물론, 다시 전처럼 일반인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탁구를 하게 되면서 경직되어 있던 몸도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게 되고, 이와 함께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들에게 패럴림픽 참가와 대회 입상이라는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된다. 그 꿈은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장애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마취제가 된다. 그러곤 그들은 세계 정상급 장애인 선수들이 경합하는 패럴림픽에서 당당히 정상에 서게 된다. 탁구를 하게 되면서 꿈꾸던 일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게 시작이었다. 4년마다 돌아오는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준비된 선수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곤, 최경식, 정은창은 다시 또다시 도전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4회 이상 패럴림픽에 참가하게 되었고,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둘째, 패럴림픽 참가는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무관심과 차별, 장애의 고통까지 극복해야 하는 일이었다. 휠체어에 의지한 상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상대가 보낸 탁구공을 받아 회전을 걸어 넘기기까지 또는 불편한 신체에서 오는 고통을 견디며 또 다른 공격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신체적 분리함에 더하여 훈련비 지원도 열악하고, 언론과 국민적 관심까지 적으며, 2008년 전까지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메달획득 보상에 차별까지 존재하였다 보니 장애인 선수로서 선수 생활 유지의 힘든 현실과 무관심, 차별에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탁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탁구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새로운 실업팀 창단 소식과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온전히 운동선수로서 생활하고, 인정받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 희망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들의 운동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생활고를 신경 쓰고 있다. 연습하기 위해서는 장비, 운동복, 연습 장소 등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 선수들의 현실은 다르다. 장애인 선수들이 연습할 때 장비, 운동복, 장소는 기본이고, 기술을 가르치는 코치, 휠체어 같은 각종 보조기구, 장애인 선수에 밀착하여 도움을 주는 보조요원, 선수별 장애를 보살피는 의료진 등 일반 선수들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지원을 장애인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나 정부에서 받지 못하게 된다면 모두 선수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 선수들 아니 장애인이 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개인별로 다른 건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은 일반 선수들과 다른 환경에서 오는 생

활고에 대해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이해곤, 최경식, 정은창이 하나 같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지원의 의미는 장애인 선수들의 복지 차원을 넘어서 타의에 의해서 한순간 사회적 약자가 되어 삶의 희망을 잃게 된 사람들에 관한 희망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도 똑같은 국민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얼마 전 연구자는 왼손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져 수술한 경험이 있다. 처음 수술을 하게 된 이후 다치게 된 자신을 원망했고, 이후 다치게 된 원인의 대상을 원망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씻거나 물건을 잡거나 운전할 때, 다쳐서 수술한 손으로 인해 갑자기 불편해진 현실에 적응해야 했다. 불편해진 현실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와 함께 왼손가락의 중요함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 수술 자리의 실밥을 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도 수술 자리의 변해버린 손가락 모양은 낯설고, 가끔 찾아오는 고통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이 작은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장애인 선수들은 그 많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도 탁구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향해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노력으로 삶의 전환점을 다시금 극복하여 패럴림픽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매순간 열악한 지원환경과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차별의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드라마를 써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올림픽을 우리의 올림픽으로써 마주 보고, 함께 응원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 체육인들이 인정받고, 실질적인 지원도 나아져 무관심과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CHOSUNILBO. (1973.08.13). Three more gold medals. Retrieved on Aug, 13, 197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chosun.com>.
 [조선일보 (1973.08.13). 금메달 셋 추가. <https://chosun.com> 에서 2023.03.22. 인출]
- Gu, D. H. (2020.10.26.). The reality is that it is a cyclist's life in COVID-19 headwind. Retrieved on Oct, 26, 2020,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ilyosisa.co.kr>.
 [구동환 (2020.10.26.). ‘코로나 역풍’ 경륜 선수 생활고 실상. <https://www.ilyosisa.co.kr> 에서 2023.03.23. 인출]
- <http://tt.koreanpc.kr>(n.d.). Retrieved on Mar, 26, 2023, from the World Wide Web: <http://tt.koreanpc.kr>.
- Hwang, I. S. (2002.10.31.). [Poor state of government support] Disabled athletes, “Where is my place to stand...”. Retrieved on Oct, 31, 200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kmib.co.kr>.
 [황일송 (2022.10.31.). [빈약한 정부지원 실태] 장애인 선수 “내 설곳은 어디...”. <https://www.kci.go.kr>

- www.kmib.co.kr 에서 2022.03.23. 인출]
- Jang, I. H. (2018.03.19.). Terrestrial broadcasters turned a blind eye to the Paralympics. Retrieved on Mar, 19,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sisain.co.kr>.
[장일호 (2018.03.19.). 패럴림픽 외면한 지상파 방송사들. <https://www.sisain.co.kr> 에서 2023. 03. 22. 인출]
- Jeong, S. G. (1988.11.19.). The actual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5 Social Perception. Retrieved on Nov, 19, 198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hani.co.kr>.
[정석구 (1988.11.19.). 장애인 그 실태와 대책 4 사회 인식. <https://hani.co.kr> 에서 2023.03.22. 인출]
- Jeong, S. G. (1988.11.20.). The actual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5 Government policies. Retrieved on Nov, 20, 198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hani.co.kr>.
[정석구 (1988.11.20.). 장애인 그 실태와 대책 5 정부 시책. <https://hani.co.kr> 에서 2023.03.22. 인출]
- Jung, H. Y. (2021.04.29.). Former Daegu City Hall Disabled Table Tennis Team Coach Choi Kyung-sik Donates 10 Million Won for Sports Development for the Disabled. Retrieved on April, 29, 202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856>.
[정혜윤, (2021.04.29.). 前 대구시청 장애인탁구팀 최경식 감독, 장애체육 발전 후원금 1000만원 기부.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856> 에서 2023.03. 22. 인출]
- Jung, Y. K., Moon, K. M., & Lee, H. S. (2019).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Disabled Sports in Korea (1994-2018).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7(4), 15-28.
[정영기, 문경민, 이현수 (2019). 국내 장애인스포츠 연구동향 분석(1994-2018).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7(4), 15-28.]
- Kim, B. Y. (2010). The Historical Process of Table Tennis for the Disabl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김병영 (2010). **장애인 탁구의 변천 과정**.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I. S., Choi, K. Ho., & Lee, S. H. (2018). Oral Life History Contributors to Korean Sports Development(3): Song Shin-Nam, the Pioneer of Wheelchair Table Tennis & Lawn Bowls.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6(2), 59-70.
[김일수, 최경훈, 이승훈 (2018).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공헌자의 구술생애사(3): 휠체어 탁구 및 론볼의 선구자 송신남.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6(2), 59-70.]
- Kim, J. W. (2015). Study on Participation of a Single South-North Team in the 41st Chiba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1991).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4(3), 1-12.
[김재우 (2015).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91) 남북단일팀 참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4(3), 1-12.]
- Kim, S. J. (1988.10.14.). Paralympic Special High School 1. Disabled people are not abnormal.

- Retrieved on Oct, 14, 198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hani.co.kr>.
- [김성재 (1988.10.14.). 장애자 올림픽 특별기고 1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아니다. <https://hani.co.kr> 에서 2023.03.22. 인출]
- Kim, S. J. (1988.10.22.). Paralympic Special High School 2. Disability Festival and Charity of Normal People. Retrieved on Oct, 22, 198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hani.co.kr>.
- [김성재 (1988.10.22.). 장애자 올림픽 특별기고 2 장애인 축제와 정상인의 자선. <https://hani.co.kr> 에서 2023.03.22. 인출]
- Kim, S. J. (1988.10.25.). Paralympic Special High School 3. Equal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on Oct, 25, 198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hani.co.kr>.
- [김성재 (1988.10.25.). 장애자 올림픽 특별기고 3 장애인의 평등한 인간권리. <https://hani.co.kr> 에서 2023.03.22. 인출]
- Kim, H. J. (2004.09.20.). “We entered Athens in a pack” Non-disabled ‘direct flight’ disabled ‘passing flight’. Retrieved on Sep, 20, 2004,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ohmynews.com>.
- [김호중 (2004.09.20.). “우린 짐짝처럼 실려 아테네 입성했다” 비장애인 ‘직항로’ 장애인 ‘경유비행’. <https://www.ohmynews.com> 에서 2023.03.23. 인출]
- Lee, H. J., & Kang, B. I. (2022).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e Right to Sports for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3(4), 137-150.
- [이학준, 강병일 (2022). 장애인의 스포츠권 보장의 철학적 함의.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3(4), 137-150.]
- Lee, J. E. (2018.03.09.). You're not going to broadcast it...Paralympic programming time to develop indifference. Retrieved on Mar, 09,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news.mt.co.kr>.
- [이재은 (2018.03.09.). “중계 안 해줘요?” 무관심 키우는 패럴림픽 편성시간. <https://news.mt.co.kr> 에서 2023.03.22. 인출]
- NEWSIS. (2008.09.05.). Jang Hyang-sook, president of the Korea Sports Council for the Disabled, said, “Equal treatment of non-disabled athletes” . Retrieved on Sep, 05, 200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newsis.com>.
- [뉴스시스 (2008.09.05.).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비장애인선수들과 동등한 대우” . <https://newsis.com> 에서 2023.03.23. 인출]
- No, J. M. (2021.08.01.). No matter where you turn it on, only soccer... Recommendation of sequential organization is useless?. Retrieved on Aug, 01, 202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mediatoday.co.kr>.
- [노지민 (2021.08.01.). 어딜 틀어도 축구만... 순차편성 권고 무용지물?. <http://www.mediatoday.co.kr> 에서 2023.03.22. 인출]
- Moon, G. P. (2008). Kinematic Analysis on Stroke in Wheelchair Table Tennis of Spinal Cord Injured Athletes and a Comparative Study with Amputation Athletes -Case Study of Medalists of Beijing 2008 Paralympics.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18(4). 151-159.

- [문건필 (2008). 척수장애 휠체어 탁구 스트로크의 운동학적 분석 및 절단장애 선수와의 비교 -2008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 사례연구-. **한국운동역학회지**, 18(4), 151-159.]
- Park, K. D., Kwak, N. H., & Yeon, D. J. (2018). Special education through the oral presentation of Disabled national play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9(1), 1-23.
- [박기동, 박낙현, 윤대중 (2018).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구술을 통해 본 특수교육.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9(1), 1-23.]
- www.sports.or.kr(n.d.). Retrieved on Mar, 26, 2023, from the World Wide Web: www.sports.or.kr.
- Yeon, D. J., Choi, S. A., & Kim, J. H. (2022). The Process of Winning Medals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Paralympics in Korea.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3(4), 1-32.
- [윤대중, 최승아, 김지훈 (2022). 한국 파라 아이스하키의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메달획득 과정.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3(4), 1-32.]
- Yoon, T. L. (2013).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Gangwondo: arche.
-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강원도: 아르케.]

<국문 초록>

패럴림픽의 삶의 기록: 장애인 탁구 패럴림픽을 중심으로

최 승 아 · 김 지 훈

[목적]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장애인 탁구 종목에서 뛰어난 성장과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대중에게는 관심에서부터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탁구 대표팀의 패럴림픽 참가 경험과 그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에 있다. **[방법]** 탁구 패럴림픽에 참가한 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 과정을 통해 패럴림픽 출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입상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패럴림픽이 패럴림픽인들에게 삶의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시기별로 분류하고, 이야기되는 맥락을 분석하여 해석을 도출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모두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은 장애를 얻었고, 재활을 위해 탁구를 접하게 되면서 장애가 생긴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한 희망이 된다. 둘째, 패럴림픽 참가는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무관심과 차별, 장애의 고통까지 극복해야 하는 일이었다. 셋째, 패럴림픽 챔피언이 된 이후 그들의 운동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생활고를 신경 쓰고 있었다. **[결론]** 여전히 관심도 부족하고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이겨내며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장애인 체육인들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에 더불어 언론을 비롯한 우리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주제어 : 상이군인, 패럴림픽, 패럴림픽인, 탁구, 구술사

논문 접수(Received): 2023. 05. 11. / 심사 시작(Examined): 2023. 05. 11. / 게재 확정(Accepted): 2023. 07. 19.